

신혜선의 사진들은 가족사진이다. 그녀의 사진 프레임 안에는 가족들이 들어 있다. 그런데 그 가족들의 모습은 어쩐지 좀 낯설다. 그건 프레임 공간 안에서 우리를 마주보는 가족의 얼굴들이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신혜선이 포착해서 보여주는 가족은 우리의 습관적 가족 개념을 벗어난 가족, 즉 국제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다문화 가족들이다. 하지만 신혜선의 가족사진이 어쩐지 낯설게 보이는 건 다만 그것이 다문화 가족이어서 만은 아니다. 그 낯섬은 오히려 그 다문화 가족을 응시하는 작가의 특별한 사진적 시선에서 더 많이 비롯한다. 신혜선의 렌즈는 얼핏 낯설고 어색하게 보이는 다문화 가족을 그러나 지극히 평범하고 친숙한 시선으로 응시하고 포착한다. 우리가 그녀의 가족사진으로부터 받아들일게 되는 모종의 특별한 느낌은 대상의 표면적 낯섬과 그 낯선 대상을 전혀 낯설지 않게 응시하는 사진적 시선의 이중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신혜선의 가족사진은 그러한 낯섬과 평범함의 이중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들을 전달하려는 것일까?

신혜선의 가족사진에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다. 우선 정보적 층위의 메시지가 있다. 사진 이미지는 그 객관적 재현성 때문에 일차적으로 대상에 대한 사실적인 정보를 보는 이에게 제공한다. 신혜선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우리는 신혜선의 가족사진 공간 안에서 먼저 호기심을 불러오는 얼굴, 즉 이주민 여성들의 낯선 얼굴들을 응시하면서 그로부터 동남 아시아적 계통성의 얼굴들이 공유하는 종족학적이고 골상학적인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 또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제스처를 통해서 이들 이주민 여성들이 태어나고 자라 온 바다 건너 나라들의 문화와 역사 또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신혜선의 가족사진이 제공하는 정보적 메시지가 다만 이주민 여성들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다. 이주민 여성의 얼굴은 프레임 공간 안에 나란히 배치된 이 나라 남성들의 얼굴과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습관적 시선 때문에 그동안 주목하지 않았던 이 나라 남성들 얼굴의 관상학적 특성들을 더불어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새삼스런 관상학적 관찰은, 'A. 잔더'를 빌리자면, 얼굴과 그 얼굴이 소속된 사회적 계급 사이의 필연적 연계성 또한 엿보게 만든다. 예컨대 사진 속에 들어 있는 남성들의 신산스런 얼굴들이 그들이 소속된 경제 사회적 계급성과 무관한 것이라고 그 누가 주장할 수 있겠는가?

다음으로 읽을 수 있는 메시지는 사회적 층위의 메시지다. 정보적 메시지가 사진 이미지를 바라보는 직접적 시선과 연결되는 것이라면 사회적 층위의 메시지는 그 직접적 시선 안에 내재해 있는 또 하나의 시선, 국제결혼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의 시선을 통해서 읽힌다. 국제결혼이 이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부정적 집단 의식을 통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신혜선의 다문화 가족사진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선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예컨대 우리는 사진 공간 안에서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는 부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적 독서, 즉 프레임 안의 여자와 남자가 사실은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결혼이라는 형식을 거쳐 서로를 선택했는지를, 또 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시장 주의적 거래가 사랑을 대신하고 있는지를, 사진을 응시하는 시선 안에서 함께 읽고 있으며, 나아가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라는 거칠고 놀라운 국도변 플랜카드의 문구를 기억하면서 이 결혼들이 중국에는 어떤 결과로 끝나게 될 것인지를 미리 점쳐보기도 한다. 하지만 그러한 집단 의식적 독서가 다만 보는 이의 의식 안에 깊이 내재해 있는 국제결혼에 대한 선입견만을 확인 시키는 건 아니다. 오히려 보다 주목해야 하는 건, 그러한 선입견적 집단 의식이

우리들 자신의 구체적인 체험이 아니라 신문과 TV들이 매개하는 추상적 사실들을 통해서 고착된 의식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신혜선의 사진 안에서 집단의식화 된 사회적 메시지를 읽어내면서 우리들 자신의 의식이 사실은 얼마나 타율적인 것이며 더불어 사진 공간 안의 다문화 가족들에 대한 부정적 시선 또한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간적 층위의 메시지가 있다. 신혜선의 다문화 가족사진을 부정적인 선입견의 시선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선으로 다시 응시하게 만드는 인간적 층위의 메시지는 무엇보다 프레임 공간을 구성하는 두 사진적 요소들의 상호관계성을 통해서 전달된다. 그 하나는 사진들의 장소적 배경이고 다른 하나는 그 배경 앞에서 인물들이 저마다 취하고 있는 포즈이다. 신혜선의 렌즈가 보여주는 사진들의 장소적 배경들은, 그것이 실내이든 실외의 풍경이든, 다 같이 초라하고 열악하다. 그리고 그 장소적 배경의 초라함과 열악함은 보는 이로 하여금 사진 속 가족들이 지금 그 곳에서 영위하고 있는 생활들이 그 배경과 다르지 않게 가난하고 열악한 것임을 쉽게 짐작하게 만든다. 하지만 그 가난하고 초라한 생활의 담당자인 인물들의 포즈는 예외 없이 순박하고 다정하고 또 당당하다. 예컨대 풀밭에 앉아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부부의 포즈는 그 외면적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정한가. 또 빨래를 널다가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카메라를 응시하는 젊은 여인의 웃는 얼굴은 얼마나 순박하며 특히 부푼 배를 앞세우고 정면으로 카메라를 응시하는 임신한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의연하고 당당해 보이는가. 그러나 신혜선이 정면 촬영법을 통해서 강조하는 인물들의 포즈로부터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 다만 부정적인 선입견과 달리 건강하고 긍정적인 다문화 가족의 모습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 포즈로부터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건, 우리가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리고 망각해 버린 어찌하면 그래서 너와 나의 마음 한 곳에 더 깊은 그리움으로 남아있는 그 어떤 가족의 얼굴이다. 우리가 신혜선의 다문화 패밀리 포토 앞에서 한동안 걸음을 멈춘다면 그 또한 그 인간적인 가족에 대한 새삼스런 기억 때문일 것이다.